# 제비처럼 날쌘 JB금융, 6년 새 자산 3배 '깜짝 실적'

## JB금융지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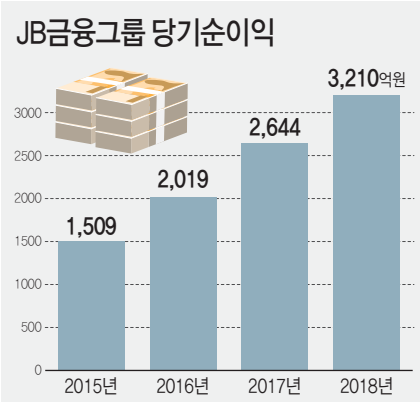
**지난해 순익 3210억, 21.4% 증가**
**수도권지역 소형 전략점포 확대**
**중소서민 대출 집중… 수익률↑**
**배당성향 높이고 직원 연봉 상향**

JB금융그룹이 지난해 최대실적을 기록하며 자산규모가 6년새 3.3배 가량 커졌다. 특히 실적호조 만큼 배당과 연봉도 높아지고 있어 관심이 쏠린다. 금융권 안팎에선 JB금융의 성장배경에 대해 차별화된 수도권 소매금융 전략과 수익원을 미리 확보하기 위한 해외진출 노력이 효과를 본 것으로 분석한다.

**◆JB금융 실적 고공행진**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JB금융그룹은 2013년 7월 지주사(자산 14조원) 전환 이후 6년간 자산규모가 47조원으로 성장했다. 특히 지난해 JB금융은 전년 대비 21.4% 증가한 3210억원의 순익을 달성해 계획했던 2880억원을 초과 달성했다.

JB금융 관계자는 "지방의 경우 급속히 고령화가 진행돼 수도권을 확대하게 됐다"며 "핵심자회사인 전북은행과 광주은행이 직원 4~5명이 일하는 미니점포를 만들어 중소서민 대출에 집중했기 때문에 수익률이 증가할 수 있었다"고 했다.




실제로 JB금융은 은행을 중심으로 차별화된 소매금융 선도를 경영전략으로 삼고 있다. 지난해에는 다른 금융그룹과 달리 가계대출에 주력해 수익창출을 이끌었다. 지난해 전북은행은 기업대출이 6조9898억원으로 1.1% 늘어난 반면 가계대출은 6조5557억원으로 10.3% 증가했다.

특히 JB금융은 시중은행이 비대면 금융을 강조하며 점포를 줄이고 있는 것과 달리 수도권 지역에 소형 전략점포를 확대하고 있다.

지역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전라도에 기반을 둔 JB금융그룹의 수익창출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

JB금융그룹이 지난해 최대실적을 기록하며 자산규모가 6년새 3배가량 커졌다.김한 JB금융그룹 회장. /JB금융그룹

현재 JB금융은 지방금융그룹 중 가장 많은 수도권 점포를 갖고 있다. 전북은행 16개, 광주은행 31개 등 총 47개다. 현재 은행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수도권과 지방이 5대 5수준이다. 지방중소기업의 업황 부진에도 타격이 작은 이유다.

해외진출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핀테크와 인터넷 전문은행의 출현으로 국내 또한 물리적 경계가 의미 없는 무한경쟁시대로 접어 들었다고 판단해서다. 지난 2016년 8월 캄보디아 프놈펜상업은행을 인수한 JB캐피탈은 4월 미얀마에 현지법인을 세웠다. 최근에는 인도네시아까지 영토를 넓히고 수익성이 높은 중고차 금융에 집중하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한국경제는 구조가 고도화되고 저성장 단계에 진입해 국내 금융사의 적극적인 외형확대가 되지 않으면 성장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 "JB금융그룹이 아시아 신흥국에 저축은행 비은행 금융회사 등으로 진출한 측면이 실적을 확대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JB금융 최대실적에 깜짝 배당·최대연봉**

단기간 최대실적을 보인 JB금융은 적극적인 주주환원 의지도 보이고 있다.

JB금융의 지난해 결산 현금배당은 주당 180원으로 배당성향은 14.4%였다. 전년 대비 6.1%포인트나 높아졌다. 배당성향은 순이익 중 배당금으로 지급된 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다른 금융지주 대비 낮은 수준이지만 올해는 배당성향을 20% 수준까지 올리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실적 만큼 직원 연봉도 올랐다. JB금융그룹이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하면서 지주를 뒷받침 하는 은행 임직원 연봉도 동시에 상승한 것.

임용택 전북은행장과 송종욱 광주은행장 등 임원의 통상 성과보수액도 1년새 최대 4배 가량 늘어났다.

통상 성과보수액은 임원 성과평가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연봉·목표 초과실현이익에 따른 특별 인센티브를 말한다. 주로 현금과 주식, 주식연계상품으로 지급된다.

'2018년도 지배구조 및 보수체계 연차보고서(연차보고서)'를 통해 전북은행의 직급별 보수총액과 성과보수액을 확인한 결과 등기임원의 보수총액과 성과보수액은 각각 6억2000만원, 13억2000만원이었다. 현재 전북은행은 사외이사를 제외한 등기임원이 임용택 전북은행 행장과 신상균 상임감사위원 2명이 있다. 단순평균으로 계산하면 한 명당 9억7000만원을 가져가는 셈이다. 송종욱 광주은행장의 보수총액도 2배 이상 늘었고, 성과보수액도 8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4배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북은행과 광주은행의 평균 임직원 연봉도 증가했다. 전북은행의 임직원 평균 보수는 8900만원으로, 전년(7700만원)보다 15.6% 증가했다. 지방은행 중 가장 높은 연봉을 기록하는 BNK경남은행(8800만원)보다 100만원 더 많은 규모다. 광주은행의 임직원 평균보수도 8200만원으로 집계돼 전년보다 2.5% 증가했다.

JB금융 관계자는 "지역기반 영업을 유지하면서 수도권 틈새시장과 해외 진출을 강화한 것이 수익에 영향을 미쳤다"며 "자본비율이 개선되면 배당성향을 업종 평균 수준으로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지난 13일 서울 중구 NH농협금융지주 본사에서 열린 'NH농협금융지주 제1기 청년이사회 위촉식'에서 김광수 회장(앞줄 왼쪽 3번째)과 최창수 경영기획부문장(뒷줄 오른쪽 1번째), 청년이사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유연한 조직문화 확산"… '청년이사회' 발족

**NH농협금융지주**

NH농협금융지주는 지난 13일 서울 중구 본사에서 수평적이고 유연한 조직문화 확산을 위해 청년이사회를 발족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출범하는 청년이사회는 농협금융의 체질 개선과 미래 성장을 선도할 농협금융 각 부서 직원 11명으로 구성했다. 앞으로 청년이사들은 여러 안건 주제를 선정하고, 이에 대해 열띤 토론을 진행할 계획이다.

김광수 회장은 "청년이사들은 형식과 틀에 얽매이지 말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토론하길 바란다"며 "청년이사회를 통해 제안된 의견들이 실질적으로 정책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청년이사회는 이날 위촉식을 시작으로 올해 말까지 활동하게 된다. 농협금융의 혁신과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지속적으로 제안하고, 조직 내 잘못된 관행과 업무프로세스를 개선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안상미 기자 smahn1@

## 손태승, 시중은행장 중 나홀로 말聯 순방길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

**韓-말레이시아 비즈니스 포럼 참석**
**신시장 창출·미래발전 방향 등 모색**

주요 시중은행장이 말레이시아·캄보디아 경제사절단에 동행하지 않은 가운데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이 유일하게 한-말레이시아 포럼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손태승 회장은 14일 국내 주요 기업 88개사가 참여한 경제사절단과 함께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만다린 오리엔탈 호텔에서 개최한 '한-말레이시아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했다. 이날 포럼에는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해 김태영 전국은행연합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권평오 코트라 사장 등이 동행했다.

이번 비즈니스 포럼에서는 말레이시아와 한국의 주요 기업인이 한 자리에 모여 신시장 창출 및 산업의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해 토론했다.

구체적으로는 ▲말레이 신정부 경제정책과 말-한 협력방안 ▲신남방 정책과 한-말레이 협력의 미래 ▲말레이 투자환경 및 협력 유망산업 소개 ▲한-말레이 산업협력과 제3국 공동진출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

다른 시중은행장이 이번 경제사절단과 포럼에 동행하지 못한 이유는 신임 행장 선임에 따른 주총 준비는 물론 내부 행사 일정 등이 잡혀 있었기 때문이란 후문이다.

오는 3월 말 임기 만료를 앞둔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은 후임으로 지성규 KEB하나은행 부행장이 내정됐다. 신한은행 또한 지난해 말 새 행장으로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부사장을 내정하면서 마지막 인수인계 작업이 한창이다. 이 밖에도 타 시중은행의 경우 주주총회 시즌을 앞두고 사전 준비 작업 등 내부 일정이 겹쳐 경제사절단 동행이 어려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 관계자는 "우리은행 이외 타 시중은행에서는 신임 행장을 선임하는 등의 내부 이슈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경제사절단에 동참하기에는 무리가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우리은행은 연초 지주회사 전환과 재상장 등 내부적인 문제를 비교적 일찍 마무리지었고, 이후 별다른 잡음 없이 경영활동을 이어가고 있어 이번 경제사절단과 포럼에 동참할 수 있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우리은행이 주요 시중은행 중 441개의 가장 많은 해외 네트워크를 가진 것으로 알려진 만큼 손 회장이 글로벌 금융시장 제패를 위한 사업 모델을 확충하기 위해 이번 경제사절단에 동행한 것으로도 분석된다. 이는 지난 1월 손 회장이 발표한 신년사에서도 드러났던 목표로, 손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현지 리테일 영업과 IB 영업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손 회장은 이번 한-말레이시아 포럼에 이어 오는 15일 예정된 한-캄보디아 포럼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홍민영 기자 hong93@

## KEB하나은행 "부동산 상식 Hana씩 알아가세요"

'Hana씩 알아가는 부동산 상식' 발간

KEB하나은행은 보다 현명하고 안전한 부동산 투자 및 거래를 돕기 위해 부동산 기초상식과 용어를 정리한 'Hana씩 알아가는 부동산 상식' 소책자를 발간, 전국 영업점을 통해 무료로 배포한다고 14일 밝혔다.

최근 부동산 정책의 잦은 변화와 이로 인한 시장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부동산 관련 문의와 상담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질문 빈도가 높은 내용을 중심으로 부동산 정보 수집 및 거래에 유용한 내용을 담았다.

부동산 기초상식, 부동산 공적장부, 부동산 공법 및 감정평가, 주택의 매매·임대차, 수익형부동산, 부동산 개발 및 신탁, 경매 등 7가지 주제로 구성했으며, 전문용어를 비롯한 어렵고 복잡한 부동산 관련 내용을 쉬운 용어로 정리해 손님들의 빠른 이해를 돕도록 제작됐다. /김문호 기자 kmh@

## 국민연금, 현대차·모비스 제안 '찬성'

국민연금이 현대모비스와 현대자동차 주주총회에서 회사 측이 제안한 배당, 사내·사외이사 선임, 감사위원 선임 제안에 모두 찬성하기로 했다.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14일 오전 회의를 개최하고 현대모비스,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효성의 정기 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방향을 이같이 결정했다.

수탁자 전문위는 현대모비스·현대자동차 회사 측 제안에 대해 모두 찬성했다.

사측이 제안한 안건은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배당)승인의 건▲사외이사 선임의 건▲정몽구·정의선 사내이사 재선임의 건▲감사위원회 위원선임의 건 등이다.

먼저 배당에 대해서는 현대모비스의 1주당 4000원 배당, 현대차의 1주당 3000원 배당 제안에 동의했다.

미국계 행동주의 펀드 엘리엇이 제안한 현대모비스 1주당 2만6399원(보통주), 현대차 1주당 2만1976원 배당은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현대차의 정의선 현대차그룹 총괄 수석부회장의 사내이사 선임 및 현대모비스의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사내이사 선임 안건에 대해서도 찬성했다. /손엄지 기자 sonumji301@